

# 승점 5점 쌓아야 16강... 24일 우루과이전 최소 비겨야

1승 2무 이상 해야 조별리그 통과  
한국, 승점 4에 울고 웃어  
2006년 1승 1무 1패로 조 3위  
2010년에는 4점으로 16강 진출  
필승제물 가나 잡고 2점 더 확보를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막을 올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원정 대회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16강에 오르는데 필요한 최소 승점은 얼마일까. 과거에서 찾은 답은 5점이다.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24개국에서 지금과 같은 32개국으로 늘어나 각 조 1, 2위가 16강에 나선 것은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다.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여섯 차례 월드컵의 조별리그에서 승점 5 이상을 얻고도 16강 진출에 실패한 나라는 없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려면 최소 1승 2무 이상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보다 적은 승점으로도 16강에 오를 수는 있다. 1998년 칠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카메룬과 모두 비겨 승점 3을 따는 데 그쳤으나 이탈리아(2승 1무)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오스트리아와 카메룬이 2무 1패를 거둬 칠레에 밀렸다.  
승점 4로 16강에 오를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같은 조에서 3전 전승이나 2승 1무 등 독주하는 팀이 나오면 승점 4로도 16강에 오를 가능성은 커진다. 2002년 한일 대회에서는 조 2위로 16강에 오른 8개국 중 4개국의 승점이 4(나머지 4개국은 승점 5)였다.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도 4개국이 승점 4를 수확하고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2018년 러시아에서는 2개국이 승점 4를 획득하고 16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승점 4가 16강 진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네 나라가 승점 4로 조 2위를 차지했던 2002년의 경우 똑같은 승점 4를 따고도 조 3위로 밀려 일찌감치 짐을 싣는 나라가 4개국이나 된다.  
2018년 대회에서는 콜롬비아가 2승 1패(승점 6)로 1위를 차지한 H조에서 나란히 1승 1무 1패(4득점 4실점)에 골 득실, 다득점까지 같았던 일본과 세네갈의 희비가 엇갈렸다.  
조별리그에서 엘카드를 세네갈이 총 6장, 일본이 총 4장을 받아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앞선 일본이 16강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승점 4에 울고 웃었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1승 1무 1패로 원정 대회 최고 승점을 쌓았으나 스위스(2승 1무), 프랑스(1승 2무)에 이어 조 3위로 밀렸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당시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을 한 가운데 그리스 1승 2패, 나이지리아가 1무 2패에 그치면서 우리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르는 한국도 결국은 최소 승점 5는 확보해야 16강 진출의 안정권에 들 수 있다.  
'필승 제물'로 꼽히는 가나를 잡는다고 해도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중 한 팀을 더 꺾거나 두 팀과 모두 비겨야만 승점 5 이상을 쟁길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의 2승 1무(승점 7)다.  
거스 허딩크 감독이 이끈 당시 한국 대표팀은 폴란드에 2-0으로 이겨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리를 거둔 뒤 미국과 2차전에서 1-1로 비겼고,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눌러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골 세리머니 20일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 경기. 에콰도르 에네르 발렌시아(13번)가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기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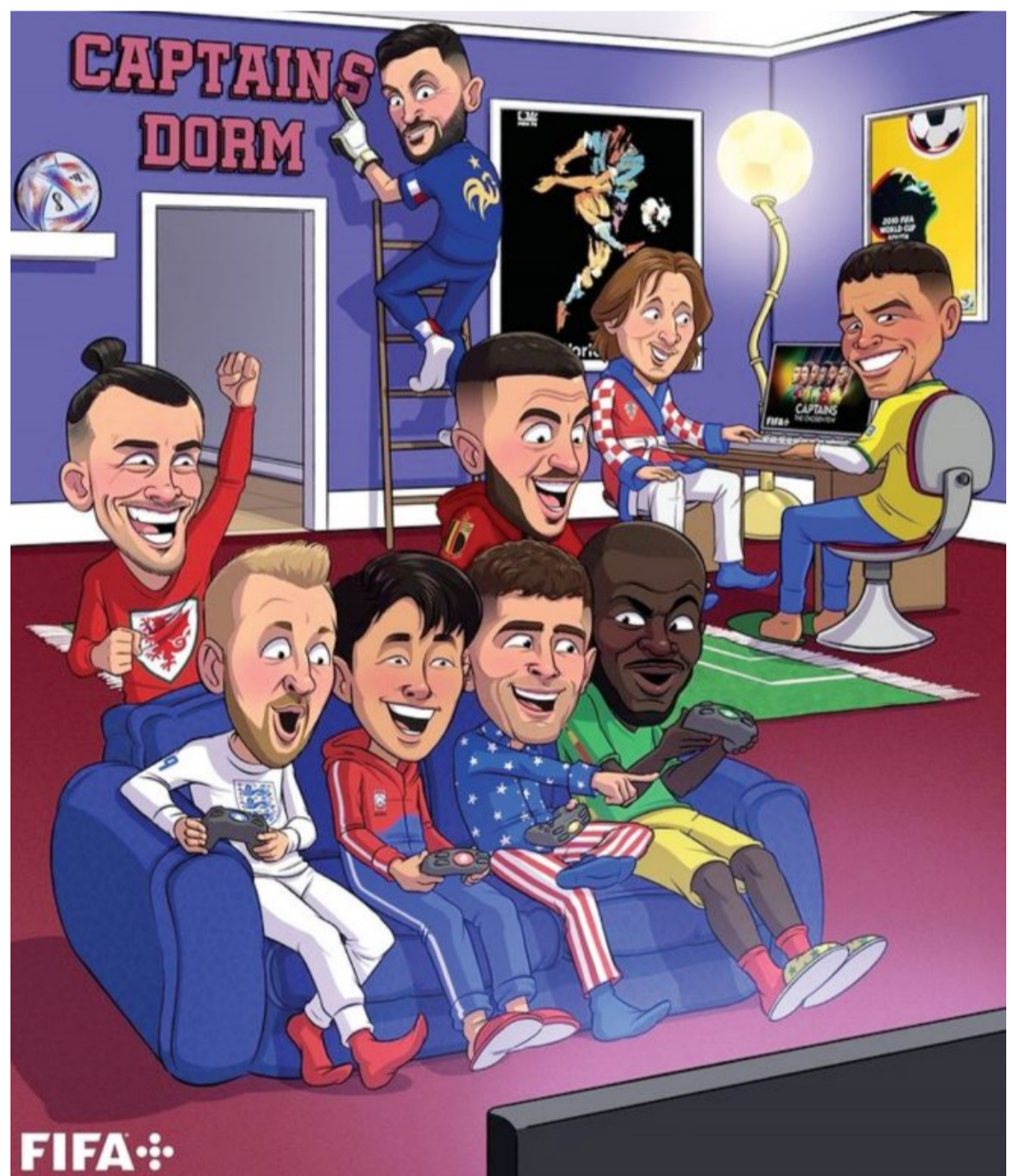
## 카타르 관중, 개막전 에콰도르에 0-2 뒤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에서 수많은 관중이 전반전 종료 후 퇴장한 것을 두고 카타르가 관중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ESPN은 21일(한국시간) "많은 카타르 홈 관중들은 개막전 전반전을 마친 뒤 경기장을 떠났다"며 "스코어가 0-2로서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과 월드컵 개막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카타르는 자국민 인구가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노인과 유아를 포함한 수치"라며 "카타르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로 6

만7372석의 경기장을 채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아마도 대다수가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타르는 이날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조별리그 A조 에콰도르와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카타르는 전반 16분에 첫 골을 허용한 뒤 전반 31분에 추가 골을 내했다.  
이날 경기장은 킥오프 전 만원 관중이 들어섰지만, 하프타임이 되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가 끝날 무렵엔 관중석의 3분의 1 정도가 비

었다.  
이날 카타르는 유효슈팅을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다.  
외신은 애초부터 축구에 관심 없던 관중들이 동원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ESPN은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약 2200억 달러(약 296조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는 이전에 열린 8번의 월드컵 유치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며 "카타르가 관중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열정적인 응원까지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손흥민, FIFA SNS '주장 캐리커처' 첫 페이지 장식



손흥민(30·토트넘)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맞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주장 캐리커처' 첫 장을 장식했다. 앞줄 소파 왼쪽 두 번째가 손흥민. <FIFA 소셜 미디어 캡처>

## 킥오프 3분 만에 잡아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첫 선

### 에콰도르 첫 골 VAR로 무산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도입한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이 개막전부터 '매의 눈'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잡아냈다.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선 전반 3분에 터진 에콰도르의 첫 골이 비디오판독(VAR)으로 무산됐다.  
페넬티 지역에서 마이클 에스트라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펠릭스 토레스가 시저스 킥으로 연결하자, 이를 에네르 발렌시아가 문전에서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골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되지 않았다.  
맨눈으로는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날 경기장 전광판에 떠오른 반자동 시스템이 잡아낸 화면은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특점에 앞서 에스트라다의 발끝이 미세하게 카타르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다.  
이를 잡아낸 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선수의 관측 움직임을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 인식(선수의 몸동작을 초당 50회 빈도로 측정)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해 비디오 판독(VAR) 심판에게 오프사이드 여부 알림(3D 이미지로 재현)

관측측정센서(IMU) 장착, 공의 움직임을 초당 500회 빈도로 VAR실로 전송

VAR 심판이 오프사이드 가능성 있다고 판단 시 필드 주심에게 알림

주심의 최종 판정 후 전광판·중계방송으로 3D 이미지 송출

자료: 국제축구연맹(FIFA) AFP 연합뉴스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가운데, FIFA는 이번 대회에선 신기술을 도입했다.  
반자동 시스템이 먼저 오프사이드를 확인해 이를 심판들에게 전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기장 지붕 아래에 설치된 12개의 추적 카메라가 공과 그라운드 위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고, 오프사이드 상황이 전개되면 곧바로 VAR 심판실에 알린다.  
추적 카메라는 각 선수의 관측 움직임을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 인식하며, 선수가 어떤 몸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초당 50회 빈도로 읽어낸다.  
또 이번 월드컵 공인구인 '알릴라' 안에는 관측 측정센서(IMU)가 장착돼 초당 500회 빈도로 공

의 움직임을 VAR실로 전송한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문을 열었던 발렌시아는 결국 이 기술로 득점을 놓쳤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전반 16분 오른쪽 슛으로 페넬티킥 득점에 성공해 이번 대회 첫 골을 기록했다. 이어 전반 31분에는 앙헬로 프레스시아의 크로스

를 헤딩골로 연결, 멀티골까지 완성해 팀에 2-0 리드를 안겼다.  
발렌시아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에콰도르의 3골을 모두 책임졌으며, 이날 전반에만 두 골을 추가해 에콰도르 선수 역대 월드컵 통산 득점 단독 1위(5골)에 올랐다. /연합뉴스

**오늘의 월드컵**

22일(화) \*한국시간 기준

아르헨티나 vs 사우디아라비아	19:00
덴마크 vs 튀니지	22:00

23일(수)

멕시코 vs 폴란드	01:00
프랑스 vs 호주	04:00

자료: FIFA

**우루과이, 한국전 대비 훈련**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상대인 우루과이가 대회 개막일에도 한국의 경기 대비에 집중하며 담금질을 이어갔다.  
디에고 알란소 감독이 이끄는 우루과이 대표팀은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르살 훈련장에서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도하에 입성한 뒤 오후에 곧장 첫 훈련에 나선 데 이어 이날도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훈련을 소화했다. 21일에는 선수 인터뷰나 초반 15분 공개조차 없는 전면 비공개 훈련을 통해 한국전에 대비한 전술 다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